
2023년 제7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8. 24.(목) 14:00 ~ 16:5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1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전 : 5개소 15작품(조각 7, 회화 8 / 신규 15, 재심의 0)

□ 심의결과

- 15작품 중 가결 9작품(원안 4, 조건부 5, 권고 1), 부결 6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서구 불로동 260-1번지	조각	A trip to infinity 1		○		
	2		조각	생각하는 나무		○		조건부, 권고
	3		조각	A trip to infinity 2		○		
2	4	서구 당하동 1233-1 RC4블럭	조각	Feel My Heart with Love(사랑으로 벅차오르는 마음)		○		조건부
3	5	중산동 1886-22번지	회화	서로의 실 곳이 되어주기		○		
	6		회화	명량한 동거 -은하수 기억			○	
	7		회화	명량한 동거			○	
	8		회화	바라보다202301			○	
	9		회화	바라보다201901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0		회화	설악의 가을빛-공룡능선		○		
	11		회화	도봉산 가을빛 Series			○	
	12		회화	illusion-22			○	
4	13	서구 원당동 1028 검단신도시 C9-1BL	조각	Montage - 피노키오		○		조건부
	14		조각	행복한 여행길		○		조건부
5	15	미추홀구 송의동 165-1번지 외	조각	물결치는 달빛 (The Waving Moonlight)		○		조건부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7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인원은 총 11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5개소 15작품이며, 조각 7작품, 회화 15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15작품, 재심의는 0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전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채점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 내용,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투명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와 창작자에게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위원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7차 작품 회의에서는 15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품 <A trip to infinity 1>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A trip to infinity 1>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작품을 살펴보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 2, 3이 같은 작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진행 편의상 첫 작품과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좀 일단은 분리해서 심의하고 채점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작품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좀 오래 걸리고요. 첫 작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저기 예. 그 저 심의서류에 아까 보니까 그 작가가... 1번, 1번이랑 3번은 동일 작가인 것 같은데, 2번도 동일 작가인가요?

사회자 예, 1, 2, 3번 동일 작가입니다.

○○○ 그럼 1, 2, 3을 한 작가가 3개를 하는 건가요?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 왜요? 동일 작가의 작품 3개가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네, 문제가 있다고 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일단 그 작품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제가 도서를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1번 작품이 설치될 위치는 주변 환경이 지금 석가산이라든가 이런 자연 속에 그 폭포가 조성되어 있는 그 후면에 이제 조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시청에 좀 바라고 싶은 건 주변 현황을 지금은 거

의 그 유사하게끔 다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다 되는데, 꼭 작가분이 받아온 거를 보면 예전에 그냥 다른 데서 썼던 그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 환경이 좀 더 좀 현실하고 좀 맞아쫘으면 그러면 작품을 조금 이해하는데 아니면 작품이 저기에 세워지면서 이제 좀 더 뭐 독창성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표현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평면으로 돼 있지만 저희 계획도면을 보면 마운딩이 돼 있는 언덕 위에 이제 설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건축주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림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주변 계획도 좀 변경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됐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작품만 보게 된다고 하면 막상 이제 설치를 하고 난 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작품이 주변 환경과 틀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됩니다. 현황은 좀 그렇습니다.

○○○

사실은 이 건축물 미술 작품이 완공된 건축물을 옆두에 두고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설계도를 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확한 현장의 구조나 상황 등을 그래픽으로 정확히 담아내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언덕이라는 게 이제 설계도상 확실하다면 그래픽을 그 정도는 사실 따라서 언덕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공간의 형상이나 공간의 구조가 맞지 않는 그래픽을 만들어서 작품을 제시한다는 거는 좀 평가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또 말씀해 주시죠.

○○○

저도 이번에 여기 서류를 보면서요. 아까 다른 위원분이 말씀하셨듯이 한 작가가 다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작가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화도 보면 한 작가가 두 점씩 제출을 했고, 여러 보는 사람들로, 시민들은 또 여러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뭐 작품은 좋다고 하지만 놓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 사실 건축물 미술 작품을 설치할 때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정적으로 한 작가가 너무 많은 작품을 할 경우에는 이 건축물 미술 작품이 애초에 생겨난 그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의견을 가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 작가 작품으로만 모든 장소에 설치가 된다면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은 사실 상실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제화나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작품이 모 장소에 좀 설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작품 자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 어쨌든 같은 단지 내에 그 한 작가의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 지금 작품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 단지 내에서 그 조건에 어울리는 작품을 어쨌든 꼭 같은 작가라서 다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이 단지 내에서 정말 필요한 작품인지를 한번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 네, 저도 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5개, 6개 10개도 아니고 3개가 하나의 주제로 한 작가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하는 것도 다양성에서는 조금 빗나갈 수 있겠지만 또 그 다양성이라는 그 면 말고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어떤 통일성 있는 작품이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원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길 때 많이 좀 참조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채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도 한번 띄워서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사회자 예.

위원장 예, 같은 작가 거니까.

사회자 예, 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저 작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무>.

○○○ 네, 그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네, 네.

○○○ 예. 어, <생각하는 나무> 앞에 벤치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면서 굉장히 사족이 좀 많이 붙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오히려 없애는 게 작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예, 저 역시도 저 의자가 앉으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상의 대상으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뒤에 <생각하는 나무>라는 저 책 쌓여있는 게 뭘... 이게 사람의 두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 근데 그러면 굳이 의자가 필요는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세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저도 경기도 심의나 뭐 이렇게 봤거든요, 저도 조각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 ○○○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고려가 안 된 그 디스플레이, 시각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많이 좀 성의가 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양식이 다 갖춰졌다 하더

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좀 아쉬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좀 급하게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만 봤을 때의 어떤 이 퀄리티하고 이 어떤 배경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하고 좀 우리 눈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작품은 이렇게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력서나 이런 것들, 전시 이력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3D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눈에 현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3D를 배제하고 무배경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거든요, 공모도.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배경이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많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작품만 놓고 볼 거냐 아니면 뭐 주변이 지금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느냐 이런 데서 좀 약간 좀 저도 좀 고민거리가 좀 생기는 그런 작품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심사위원분들께서 고민을 좀 작품만 보실지 아니면 이렇게 3D에 너무... 다른 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다른 거 보셔도 하시겠지만, 다음에 하는 회화 작품이나 이런 거 보셔도 하시겠지만 조명도 없고 그 위치가 그 마감재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경을 보고 할지 아니면 작품성만 가지고 얘기를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거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서두를 좀 떴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그래픽으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사실 뭐 배경을 만들고 작품을 거기다 얹히고 하는 그래픽 작업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현실감은 사실 실제 현실하고는 다르거든요. 현실일 것 같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진짜 정확한 거는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판명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저희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계는 사실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문제 제시하지 않고 지금 있는 한도 내에서만 심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짚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 그 자기 복제 또는 자기 유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복제 유사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두 개 이상 다작을 한꺼번에 봤을 때 이제 나타나는 말인데요. 사실은 자기 복제라는 말은 상당히 좀 시니컬하고 비관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작가들이 작품 세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불명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작가들은 남들이 볼 때는 유사한 작품이고, 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가는 자기 작품 세계를 확립한 이후에 거기서 뭔가 조그마한 변화를 찾아나가는 식으로 작품 세계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복제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쉽게, 쉽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가들이 자기 세계가 없으면 자기 복제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복제 없는 작가가 가장 위대

하고 우수한 작가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미술사에 나오는 유명한 작가들을 봐도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 진하게 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쁜 쪽으로 평가하면 자기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문이 그대로 이제 그림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기 복제라는 말은 사실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이제 조형물을 할 때 이제 쪽 이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이 작가가 한 작품이 쪽 나오는데 거기서 진짜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다면 그것은 자기 복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작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그 작품이 충분히 좋을 수 있으니까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자기 복제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진짜, 진짜 거의 뭐 누가 봐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 자기 복제라는 평가를 받아도 싸죠. 근데 어떤 약간의 변화를 찾는 작품들은 거기서 좀 예외적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그럼 저희 <생각하는 나무> 아마 작품이 지금 작가의 이력에서 보면 지금 다른 데 설치됐던 작품에 그 소재만 이제 변경을 해서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 우리가 이제 간간히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이 공공주택 미술 작품이 여러 가지에 설치된 게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자기 복제나 자기 의사에 대한 내용은 아마 조례에서 정해놓은 게 없는 건가요?

○○○ 네, 자기 복제에 대한 어떤 제한, 이런 거는 문구에 없죠? 출품 할 때.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미술사적으로 설명을... 아,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라는 말은 조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구나. 티치아노의 작품이구나.’ 금방 알 수 있듯이 보통은 그런 걸 자기 복제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팔 하나만 바뀔 수도 있어요, 같은 자세에서. 그런 걸 이제 작가의 양식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복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미술사 쪽이나 아니면 뭐 평론을 하시는 저널리스트들이나 이제 그런 어떠한 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걸 조금 작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 걸 보고 이게 복제인지 아니면 양식적 유사성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작가적인 어떤 성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면 이미 대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조금 염두에 두시고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이제 좀 너무 피상적인 어떤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생각하는 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그걸 시리즈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건 복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관점으로 그냥 평가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작품도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작품과 비슷하긴 하지만.

사회자 3번 작품도 그럼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회자 예. 3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저게 구조적으로 지금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구조적인 문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네...

○○○ 좀 개수를 줄이고 약간 조금 이렇게 리듬감이라고 하는, 리듬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손을 보면 훨씬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시각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작품 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정리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조금 약간 산만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건 그래도 좀 더 의미도 전달하면서 안정감이 완성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지금 단지 내에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 3개가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이 작품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다른 단지 이 작품만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거부감이 들거나 그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적인 성향이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테라코타를 이용해서 작품 했던 패턴을 메탈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 형태랑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나는...

○○○ 예, 나와서 아마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반복적인 조형적 원리를 잘 이용해서 통일감 있게 일단은 보여주려고 했고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S모양으로 해서 사람들이 공간을 조금 이렇게 회전하면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지금 단지 내에, 한 단지 내에 세 작품이, 한 작가 작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약간 그런 주입이 되다 보면 작품이 또 안 보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이 그나마 여기에서 이 공간과 좀 어울리는 작품으로 저는 작가적인 성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

다.

○○○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품이 1번, 3번 작품이 거의 똑같은 크기로 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도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사실은 1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산만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또 3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하려고 배열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작품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드리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게 저도 이제 작가로서 조금 약간 좀 아, 이거 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가이드를 좀 주시면 어... 예,

○○○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작품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거는 참 엄청난 실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품을 평가하고 현장에 설치될 때를 감안하면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러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설치 못한다.’ 그런 의견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봤고, 나쁜 점은 이렇게 보고, 부족한 점은 이렇게 봤다라고 개진하는 것은 충분히 그거는 사실 그런 일 하러 우리가 여기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의치 마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개수를 말씀대로 좀 줄이고 크기 변화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 네.

위원장

○○○

그리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픽 상에서 심도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바닥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 바닥에 조금 더 정리된 그런 하단부에 정리된 모습이 좀 보여지면 오히려 작품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저기 아파트에 설치될 때는 그 주민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마 들락날락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사실 놀이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견고함, 내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작가를 만약에 선정될 경우에는 많이 참고를 할 겁니다.

○○○ 그 지금 1번은 총 22개의 작품이 서 있고, 3번은 17개의 작품이 서 있거든요. 5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 예, 그래픽 시점 차라서 그게 달라 보이는 거죠.

○○○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뭐 다른 건 아니라면 작가의 작품으로서는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 사실 그래픽의 효과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작품은 이 세 번째 것보다 좀 컬러가 좀 더 다양한가요? 그래서 산만해 보이는 게 아닐까요,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 크기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크고, 작고 해야 되는데.

○○○ 그러면 이 세 번째 것도 사실 크기가 비슷한데 관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픽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 예, 예, 저도 그래픽 차이라고 봅니다.

○○○ 네, 네.

○○○ 그 배열 배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 하나당 그 색감의 통일성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있는.

○○○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그냥 섞어져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요.

-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닥석이나 이런 걸로 좀 묶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숫자가 줄어들면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작가 입장에서는.
- 예, 숫자를 차라리 줄이고. 왜냐하면 저렇게 스테인 밑에 폴리싱 처리된 상태에서 잔디가 올라가버리면 나중에 잔디 관리하기도 되게 애매하고요. 그리고 또 깎기도 애매하고요. 그러다가 자꾸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유지보수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 라면 거기 밑에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오히려 잘 보이고 작품 손상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 위원장 음, 예. 사실 애깃거리가 많은 작품이기는 합니다. 예. 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세 작품을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해두시고요. 채점을 마치면 채점표를 본인 우측에다가 놔주시면 아마 이렇게 수거해 갈 겁니다.

(채점 중)

2. 서구 당하동 1233-1 RC4블럭

4) <Fell My Heart with Love(사랑으로 벅차오르는 마음)>

- 위원장 네. 자, 첫 번째 작품 세 점이 좀, 좀 길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는 길게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서부터, 다음 작품서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세요.
- 사회자 예, 4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좀 평가해 주시죠. 작품 설명이 되게 장황했는데 작품 설명

말고 이제 작품 자체를 가지고 좀. 10m에 상당하는 작품인데 구조적으로는 어떨지 한번 좀 생각해 봐주시죠.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지, 연결 부위 같은 연결 부위 면적 같은 걸 참고할 때 위로 올라가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 저도 그 구조적인 부분을 좀 많이 봤었는데요. 일단 그 원형 플랜터가 아마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건축주 와 있나요?

사회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그 앞에, 앞에 글이... 아니, 그 앞에 작품도 그렇고, 지금 작품도 그렇고 기초 부분에 대한 규격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작품 사이즈가 3,400에 2,700인데 사각으로 쳤을 때 이 플랜터 안에 들어간다면 플랜터 내경 사이즈가 한 5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사회자 작품 관계자가 와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 지그재그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안에 힘은 수직으로 뻗었네요.

○○○ 그, 이 지금 작품이 설치되는 플랜터가 지금 외부에 돌잖아요. 그건 이제 작가이신 분은 아닌데 그 플랜터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요?

관계자 어, 지금 밑에 하단부가 이미 들어가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크게 들어가 예정입니다. 한 3~4m 정도.

○○○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림 하나... 음, 10번... 10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위원장 10번 그림 좀 띄워주세요.

○○○ 아니, 그 명판 이미지 나와 있는 거 보여주시면
서 기 네.

○○○ 저기 보면 그 작품이 들어가는 원형 부분에 녹색 이제 잔디를 까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잔디를 까는 부분에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자 잔디를 뭐 따로 그래서 원형 안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 예, 안에 부분, 예.

○○○ 그게 지금 그 작품 사이즈로 보면 대략 한 내경이 5m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관계자 네, 네.

○○○ 5m가 안 되는 가운데 이제 작품 기초가 들어가 버리면 플랜터가 이제 대략 한 500이나 한 600 정도 지금 떠 있는 상황 안에 지금 작품이 들어가고, 그 작품이 이제 잔디가 깔리게 되면 작품 높이가 지금 10m가 넘는데 이걸 눌러줄 자중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플랜터 하부 밑에 그러니까 옆에 테두리에 나와 있는 그 하부보다 기초가 더 깊게 들어가서 저 5m 반경 바깥으로 나가줘야 이게 안정감을 유지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최대 전체 그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고 했을 때 원형 내부를 전부 공구리를 채우든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밑에 기초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그냥 땅에다가 지금 묻는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높이가 꽤 높은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 여기 구조 안전 확인서라고 여기에 나오잖아요.

○○○ 아, 저기 심의 도서요.

○○○ 예, 예, 예. 구조 개선이 이제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 그러니까 그 구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중이나 뭐 저쪽에 슬라브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 전도에 관련된 부분은 표현이 안 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 검토 사업 자체에서도 이 외부 플랜터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땅속에 지금 들

어가 있는 걸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안정감을 좀 가지려면 기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렇게 땅속에 묻히고 땅속에 묻힌 상황에서 플랜터가 500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저 작품이 이제 500 높이의 플레이트 판이 더 올라간다고든가 그런 보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안정감을 위해서 기초 공사가 더 확보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관계자 아, 네.

○○○ 지금 그림으로 봐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보여서 높이가 10m 상당하니까 그거에 맞으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거예요.

관계자 아, 네, 네.

○○○ 조금 더 바닥 안정화를 위해서.

관계자 네, 네, 지금...

○○○ 지금 오신 분은 누구세요?

관계자 아, 그 작가 분, 스튜디오에서 작가를 하고 있는

○○○ 아, 본인 작가는 아니죠?

관계자 네, 네, 네.

○○○ 아, 네, 네. 그럼 저 작품에 대한 설계하고 의논 같은 거, 같이 하신 분이라 좀 알고 계신 거죠?

관계자 네, 네, 네.

위원장 아, 네. 다른 의견 또 있...

관계자 저희가 다른 때는 어 그냥 구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부분에 있었거든요. 의견을 주시면... 네.

위원장 네, 네, 네. 뭐 제작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제작하셨겠죠.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보이니까.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좀 말씀해 주세요.

서 기 일단 질문이 없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네, 네,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작품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서 기 네.

○○○ 이게 그 밑에 부분에 뭐 이렇게 뭔가 엑스가 튀어오르는 부분을 보니까 그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이 나오면...

○○○ 구조적으로요? 구조적으로 안에가 파였을 것 같아요?

○○○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냥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거기 그 조건을 좀 달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 아, 네, 네.

○○○ 그러니까 어, 배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예, 구조적으로 그럴 것 같네요. 뭐 어디 약간 형상적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도록 그렇게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한 두 부분을.

○○○ 예.

○○○ 아까 구조를 보니까 수직으로 올라간 것이 삐뚤삐뚤 올라간 게 아니라 완전히 밑에서 수직으로 올라간 거에 바깥에 쏘인 형상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형상 자체가. 그 아래 것이 이제 크고 위로 올라가면 더 작아지기 때문에. 요즘에 하도 자연재해가 하도 심해 가지고 야외에 있는 것들은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돌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안사항으로 조금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문제하고 빗물 고임 문제. 제일 처음에 나온

그 구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다른 특이한 의견 없으신 분은 채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중산동 1886-22번지

- 5) <서로의 썰 곳이 되어주기>
- 6) <명량한 동거-은하수 기억>
- 7) <명량한 동거>
- 8) <바라보다202301>
- 9) <바라보다201901>

위원장 예, 5번 안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5번부터 12번까지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번에 작품은 평면 작품인데요. 그 우측 오른
쪽 상단 그리고 좌측 하단 쪽에 약간 번쩍임이 그대로 지금 그림하고
같이 겹쳐서 나와가지고요. 얼핏 잘못 보다가는 그림의 효과로서 저렇
게 그린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카메라가 그 액자를 촬영하면서 나
타나는 산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런 거를 물감으로 그린 효과가 아
니라면 저런 효과가 나오도록 그래픽을 제출하면 안 되는데 마치 그림
의 일부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앞에 봤을 때는. 근데 5번에서
부터 쪽 뒤에 한 8작품이 다 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없고,
그것이 그림의 일부가 아니더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작품이 이제 이미지

가 맞는 거고요. 지금 사이즈가 지금 250에 160이면 150호 M사이즈거든요. 약간 알쌍하면서 150호니까 사실 실제 크기는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크린 있죠? 스크린 크기만 한 겁니다, 실제 작품은. 그걸 감안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작품성과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 저는 일단은 설치 위치를 좀 봤는데요. 작품 1과 2가 지금 같은 면에 지금 묶여 있는데 같은 면에 보면 그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그리고 작품 크기 두 개를 붙였을 때는 거의 벽면에 붙거나 그 대게 인접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작품 3번, 그다음에 작품 4번도 역시 이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 출입구 앞에 지금 바로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좀 위치가 좀 부적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작품 5번은 화장실 앞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뭔가 좀 작품 놓기에는 장소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장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작품이 너무 큰 건지 이거는

○○○ 1번 2번은 작품을 한 벽면에 붙이게 돼 있는데, 그 벽면 사이즈에 비해서 작품 2개를 났을 때 작품이 거의 붙거나 아니면 폭이 대략 한 500, 50c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작품의 크기가 이제 또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위에 라인이 맞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작품이 이제 언밸런스한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 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 위치는 상가 출입구 내지는 화장실 정면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서 관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거다. 상가라고 하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면 작품 훼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저 배치도 말고 그 현장을 그래픽 한 그림은 없나요? 아, 이런, 이런 것들.
- 이제 각자의 이 작품을 하다 보니까 2개 작품을 같이 놓은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1번, 2번은.
- 아, 네, 네.
- 네, 하나만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두 개를 만약에 같이 붙여놓고 보면 벽면 아래에 이제 머지가 2개를 묶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아, 지금 저 벽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 그렇죠, 네. 1번 2번이 지금 같은 벽면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벽 같아요.
- 아, 같은 벽이네요.
- 네, 똑같은 위치로 들어왔어요,
- 저걸 왜 하나로 안 하고 두 개로 했지, 전혀 다른 작가도 아닌데. 전혀 다른 작가인가? 작품이 유사해 가지고?
- 같이 걸었을 때 진짜 이게 작품이 안 보이거나.
- 예, 안 그래도 비슷하고
- 크기도 그렇고, 색감도 좀 그렇고.
- 지금,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거는 사실 원화는 아니잖아요. 훨씬 작은 걸 제출하고 그걸 이제 크게 그리겠다는 의도인데 크게 그렸을 경우에는 저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 작품의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두 점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작품 만나는, 선생님의 말처럼 다른 쪽에 장소를 조금 찾아 봐야 되는.

○○○ 주로 이렇게 평면이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이제 입체를 설치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실내로 이제 평면 작품으로 들어오곤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금액 대비해가지고 자꾸 넣다 보니까, 그냥 많이 넣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공간이 사실은 그래픽을 전적으로 믿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작품이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가 작품이 조금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지금 접수는 3명의 작가로 돼 있거든요. 첫 번째, 5번 작품은 한 작가, 6번, 7번 한 작가, 8번, 9번 한 작가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뭐 그림이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느낌이 비슷해 가지고 한 작가의 느낌이 좀 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 다른 작가랑 접수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 제가 볼 때는 스타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 아, 네, 네. 근데 자료가 좀 비슷한가요? 그래픽으로 뽑아낸 자료인지 아니면 실제 있는 작품인지

○○○ 1층, 2층, 3층은 작가가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2층에 이제 여러 작품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음, 이거 부영이 두 개는 같은 작가죠?

○○○ 네, 그거 다 둘 다 2층이에요.

○○○ 음

○○○ 예.

○○○ 부영이 같은 작가는 사실 뭐 시리즈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작품 자체는 소품을 촬영해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캡션을 보니까, 캡션 크기보다 별로 안 큰 거 보니까, 작품은 작은 것 같아요, 원래는, 원작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공간에 대한 얘기만 나왔거든요. 작품에 대한 얘기도 좀 해 주십시오.

○○○

저는 이제 총괄표를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평면이 총 8 작품인데 한 작가로 일단 전부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개인 작품이긴 하지만 개인전을 하는 작품이 아니고 공공미술을 좀 충족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 평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이제 이 조형물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너무 작품성들이 다 떨어진 듯하고요. 다 중국 그림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컴퓨터나 태블릿에 그려가지고 출력한 듯한 그런 어떤 회화적인 디테일이 전혀 뭐 물론 이제 이 다양한 계층을 충족하는 게 이제 이 공공미술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은 다양한 계층의 이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김포공항에 있는 달항아리 그 조형물이 굉장히 비싼 작품인데도 그냥 어떤 너무 작품성이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대책이 없이 그런 작품들을 공공미술이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오는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한 작품, 한 작가인 줄 알았고요. 작품이 몇몇이 보면 ‘이야, 이걸 정말 이 장소에 놔야 될 그런 작품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회화 작품보다 올해 작품 이 디테일이 굉장히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치 어떤 한 스튜디오에서 다 제작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몇 작품은 아, 정말 이걸 이 공간에 있으면 될까 하는 생각도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들이 올라왔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한 스튜디오에서 마치 다 나온 듯한 물론 이 장소는 이 작품이 이제 걸리게 된 어떤 장소는 다 틀리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너무 이제 회화적인 디테일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배려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그 장소의 적합성도 아주 중요하지만 작품 자체의 어떤 수준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작가들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태블릿 PC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조그맣게 제작해서 제출하지 않았나라고 그 선입견을 가질 정도로 그림이 되게 가볍고 좀 약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뭐, 그렇다고 실제 작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자료로서만 평가할 때는 조금 작가 입장에서 보면 좀 작품성이 좀 약하다는 느낌은 저도 가졌습니다.

○○○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요. 음, 그 작품의 완결성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작품들이 지금 5, 6, 7, 8, 9가 다 완결성 자체는 되게 미흡 합니다. 이게 공공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12번, 2개가 붙어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런 걸 제출했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어... 아무튼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네요.

○○○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라보다>라는 이 작품 두 작품이 부영이를 주제로 했는데 이게 이제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 눈에 대한 표현이 좀 사람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발톱의 표현을 봤을 때도 이 날카로움이 이 그림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공공장소에 이렇게 큰 부영이가 전면애 아까 화장실 앞쪽에 배치돼 있을 경우는 조금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이 눈의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거든요, 두 작품 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네, 네, 그런 의견도 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작가를 비난하려는 목적은 아니고 공공미술에 설치될 걸 가정하고 그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작가적 역량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의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은 나올 수 있습니다.

○○○ 크기가 작을 때는 예쁜데요. 커졌을 때의 어떤 위압감이라는 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사실 원래 큰 작품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저 작은 작품에서는 밀도가 좀 나올지 몰라도 저게 커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 공공미술은 사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번하고 6번, 7번, 8번, 9번을 지금 같이 얘기하게 됐네요. 이게 유사성을 다들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보니까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그렇게 나온 김에 6번, 7번도 한번 보여주시죠. 6번, 7번.

서 기 이게 6번 작품이고요.

위원장 네.

서 기 7번 작품입니다.

○○○ 9번까지 다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네, 5, 6, 7, 8

서 기 이게 7번 작품이고요.

○○○ 예.

서 기 이게 8번 작품이고요.

위원장 네.

서 기 이게 9번 작품이고요.

○○○ 네.

○○○ 저 배경에 격자무늬 저 작품을 실제로 유화로 그린 건지 상당히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해요. 저걸 유화로 그려... 소품이지만 유화로 그린 건지 아니면 그래픽으로 그냥 자료 제출용으로 한 건지 그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작품에 대한 말쑥들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제 그럼 채점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

니다. 5번부터 그러면 9번까지 같이 채점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네, 네.

(채점 중)

3. 중산동 1886-22번지

10) <설악의 가을빛-공룡능선>

11) <도봉산 가을빛 Series>

위원장 네, 안전번호 10번, 11번 발표해 주시죠.

사회자 네. 10번, 11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작품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네.

○○○ 이 작품 지금 1번 작품이랑 10번 작품이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는 건가요, 혹시?

○○○ 같은 2층이에요.

○○○ 2층인데 벽면이 같은 라인인 것 같아서, 혹시 도면을.

서 기 한쪽 벽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10번 같은 경우는 문 쪽에 작품이 많이 위치가 치우쳐 있어서 작품... 그 비상문 문은 아니고 기계실 문인지 지금 10

번 작품이 그 문 쪽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조금 더 옮겨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11번 작품이 바로 옆쪽에 있으면, 이게 강한 게 너무 근접해 있으면 또 이 작품 자체도 지금 10번이 큰데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아, 작품이 이렇게 시리즈나 연작같이 형성이 돼서 유사한 크기가 2개나 3개가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면 몰라도 전체가 일체적으로 보면 몰라도 다른 작품 2개가 하나는 가로로 길고 하나는 좀 사각형에 가깝고 이것이 그냥 옆에다 붙여놓는다는 거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

그리고 문이 이렇게 작품이랑 근접하면 작품이 또, 문도 그냥 색도 아니고 약간 색깔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작품이 너무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

아까 1, 2번 작품하고 마찬가지로 한 벽면에 이거는 1, 2번 작품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마 더 붙을 거고 또 이게 가로, 세로 사이즈가 틀려서 이걸 어떻게 또 조화를 할지 좀... 그러니까 작품 설치 위치를 보면 그냥 우격다짐으로 다 꽂아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예, 이거는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쪽 벽에 다른 크기의 작품을 동일한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 두 개가 연달아 있다? 아, 그거는 진짜 거북하게 보이고 흔히 말해 뭐, 디스플레이 방식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디스플레이도 좀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격에 맞춘 건지 아니면 개수에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두 개가 그렇게 들어가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크기가 두 개, 세 개 반복되면서 시리즈 같이 전체를 한 작품이지만 그렇게 연결된다면 몰라도 지금 작품은 전혀 다른 작품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식은 똑

같고, 그림 그리는 방식은 똑같고 단지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너무 달라가지고 한쪽 벽면을 너무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좀 설치에 대한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래픽만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디스플레이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작품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방식은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나마 작가 입장에선 다행이죠. 작품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거는 좀 권고보다 조금 더 의무적인 게 뭐죠?

사회자

조건부가 있습니다.

○○○

예, 조건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설치한 평면 작품들이 다 뭐, 반대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점수가 통과가 되면 조건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 장소에 대한 고려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

어쨌든 지금 10번 작품이 좀 더 길고 가로형으로 낸 작품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는 그 작품 하나만 중간에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고요. 11번 작품인 경우는 위치를 이동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글쎄, 이렇게 여러 개 작품이 들어갈 거면 배치에 엄청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평면 작품 거의 8개가 배치를 신경을 안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마 그림 볼 공간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는 않는데 동일한 작품을 막 붙여 놓는다고, 하나만도 못한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조건부로 반드시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결국 작품에 대한 큰 문제는 지적이 안 나오고요. 설치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뭐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작품도 한번 해보시죠.

3. 중산동 1886-22번지

12) <illusion-22>

사회자 예, 12번 작품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작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죠. 작품에 대한 퀄리티나 작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죠.

○○○ 이제 여기 기법에 보면 아크릴에다가 믹스드 미디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어떻게 아크릴 플러스 믹스드 미디어를 했는데 어떤 보존성이나 그러니까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재료를 썼다든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쪽 나온 작품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평면을 하는데요. 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평가를 하기 전에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이 과연 이게 이 공공미술로서 정말 어떤 시민들의 불거리에 대해서 어떤 충족도가 있겠는가. 이 그림을,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힐링이 되고 또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그림에 비한다면 더 이렇게 그런 어떤 이 퀄리티가 더 없는 게 아닐까 이제 이 가격을 이제 뭐 5,500, 5,500에 책정했는데 그런 가격도 그렇고요. 그냥 이러면 그냥, 그냥 날리는 그림에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이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 작품을 공유를 하고 즐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주관을 빼고 100%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이 어떤 특정 장소에 걸려 있을 때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그 퀄리티가 낮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예.

○○○ 동감입니다.

○○○ 사실 이 작가의 작품을 그나마 조금 평가를 해 준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작가는 믹스드 미디어라고 캡션에다가 쓰긴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라면 믹스드 미디어라고 쓰지 않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재료로 씬으로써 자기가 재료 실험을 어떻게 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가 될 텐데 이 작품은 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작품의 역량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보는 사람이 알아서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제출을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거의 코끼리, 코끼리와 유사한 형상을 빼면 거의 그냥 재료 기법에 가능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견 기법을 강조하고 싶으면 구체적인 재료를 제시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독특한 독창적인 표현 어법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은데 작품 설명도 그렇고, 캡션에 재료를 제시한 것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별로 생각 없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작품도 좀 미비한 자료 때문에 어떤 작품도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갤러리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그 갤러리 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제일 좀 꺼려하는 게 학생 작품입니다. ‘어, 이거 학생 작품 같은데?’ 학생 작품은 이제 곧 이제 어떤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제 학생 작품, 이런 느낌, 첫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스펙트럼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작

가들 스타일이, 같은 작가 그림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다른 여러 작가들의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또 관람객들로 하여금 또 더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 네, 아무리 평면 작품이라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작품군이 있는데 이번에 심의 대상 작품들은 좀 그게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럼 10번, 11번, 12번 채점을 해 주시죠.

(채 점 중)

4. 서구 원당동 1028 점단신도시 C9-1BL

13) <Montage - 피노키오>

위원장 자, 안전 13번부터 재개하겠습니다.

사회자 네, 1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Montage - 피노키오>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일단 피노키오라는 점에서 좀 창의성이 너무 없지 않은가,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다가와요.

○○○ 저기 최근 5년간 건축 미술, 미술 작품 심의 이력에 보시면 저분의 작품이 6점 있는데 이거는 실제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심의에 주로 왔던 건가요?

○○○ 설치가 다 된 거죠.

사회자 아, 이거는 심의 현황이고요. 설치 여부는 지금 23년 1차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될 수가 있고요. 저희 심의 요청 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건축 준공 여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적합으로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그렇죠, 부결은 오른쪽에 부결이라고 돼 있고요. 부결이 없는 거는 다 적합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예.

○○○ 자, <Montage - 피노키오>에 대해서 위원님이 형상에 있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어, 제가 반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피노키오 말고도 이전까지 제가 여기 심의 들어와서 이번 달부터 뭐지, 뭐라 그럴까 진부한 그런 주제로 한 것들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저는 피노키오가 뭐 너무 다 잘 알고는 있지만 이분의 표현 방식, 여기 나비하고 그러고 이 그, 뭐죠? 그 디테일이 나비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과 또 손끝에 있는 나비와 그다음에 이 피노키오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 사실 캐릭터도 그렇고, 형상도 그렇고 기존의 형상이나 기존의 디자인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사실은 지금 21세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어, 일종의 트렌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성의 것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21세기에 사실은 허락한 조형 방식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것을 가져왔을 때 얼마만큼 변형을 가하고 또는 자기화 시켰나, 어떤 부분에서 자기화 시킨 부분이 있나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겉으로 보는 형상의 유사성 같은 것들은 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 형상도 그렇고 또는 자연물을 갖다가 쓰는 꽃이나, 곤충이나, 동물이나 사실 그런 것들도 기존에 다 있는 형상들이지 않습니

까?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활용하는 거 자체만으로는 형상에 있어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얼마큼 재활용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소화를 시켰나 또는 변형을 어떻게 가했나, 어떻게 자기의 특성을 집어넣었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아마 또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 작가가 보니까 이 유닛을 이용해서 특허까지 낸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느라고 아마 이런 이 공간 자체가 약간 그런 아이들과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마 그걸 고려해서 작품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특허까지 낼 정도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그거를 갖고 있는 작가여서 또 재미있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약간 좀 그 각이 있는 형상 속에 약간 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 유닛, 나비 유닛으로 이렇게 보니까 특허를 내죠.

○○○ 그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표면 효과도 보면 작가만의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표면을 그냥 판판하게 사용하지 않고 나비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면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작가는 그거를 이렇게 매번 이렇게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만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형상이나, 색채나, 규모나, 안전성이나.

○○○ 아니, 위원장님께서 작품, 작품마다 피드백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 의견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완전히 딱 정리를 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공

공미술의 어떤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다양한 계층이 이 작품을 이렇게 아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피노키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피노키오에 대한 어떤 기존에 받았던 이미지가 여기,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각하는 입장에서 심의도서를 일단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보니까 안에 있는 모서리, 원심이라고 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가분이. 그래서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점수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피노키오를 만들긴 했는데 근데 그 피노키오를 가지고 개인전을 해서 몇 미터 공중에다 띄운 작업도 있어요. 근데 이런 완전한 피노키오의 형상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런 식의 사실적인 묘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 나름대로 작가들이 활용을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전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

사실 뭐 크게 치우치지만 않는다면 최근에 뭐 미술의 경향 중에 아직 까지도 좀 큰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팝적인 요소들 파퓰러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대중들이 인기를 받는 거 보면 사실 그 친숙한 형태를 갖다가 계속 활용하는 그림으로써 부작용도 없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팝적인 요소를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대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작가들도 친숙한 형태를 갖다가 자기화 시키는 것 같습니다.

○○○ 아이들이 손가락에 끼거나 다치지는 않겠죠?

○○○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보니까 여기 발행제라고, 마모하는 이런 것들이 또 표기가 돼 있어서 충분히 작가가 고려한다면 그런 정도는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 사실 그래픽이 잘 만들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좀 규모가 좀 과장되게 나온 건 있습니다, 그래픽이. 5m밖에 안 되는데 한 8m, 9m 정도의 느낌이

○○○ 약간 우려스러운 점은 옆에 손, 옆에 나와 있는 손 있잖아요. 아래로 뻗혀있는 손이 개인적으로 저는...

○○○ 사람 키에 닿지 않을까?

○○○ 예, 약간 좀 아이들이 좀 부딪히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 머리에 좀 부딪혀서 약간 안쪽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또 작가 역량이라 제가

○○○ 아, 그거는 우려의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사항으로 제시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꼭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조건부로 내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 아, 이거 바깥으로 하지 않고 안쪽으로만 이렇게 꺾었어도 무릎 쪽으로.

○○○ 어쨌든 완성도는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자, 13번 채점해 주시죠.

(채점 중)

4. 서구 원당동 1028 점단신도시 C9-1BL

14) <행복한 여행길>

- 위원장 안전번호 14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14번 작품도 13번과 동일한 지번에 설치될 작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14번 작품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게 있는데요.
- 위원장 네.
- 이게 그 2번, 우리가 했던 그 작가의 작품일까요? 저기 사탕, 하트사탕
 이 쌓여 있던.
- 아니에요, 다른 작가예요.
- 다른 작가인 것 같습니다.
- 아, 그래요? 사탕을 여기다가 쌓아놔길래.
- 하트. 아마 두 번째 작가는 도너츠 작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너츠를 이
 렇게 형상화해서 한 작업을 많이
- 예, 형상은 하트인데 거기에 도너츠 모양만
- 아, 그래요?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좀 주시죠, 작품에 대해서 표시되는. 자동차가 지
 금 이 그래픽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잘 빠져나올지 궁금하네요.
- 이 작가의 커리어를 보니까 좀 작품 스타일이 약간 위트 있게 작품을
 풀어나가는 작가더라고요. 그 예전 작업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주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 주물이기 때문에 형상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저는 처음에 첫인상으로 딱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약

간 좀 불안한 형상성이 살짝 있었는데 뭐, 사실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위험하게 설치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 부분이 잘 연결만 돼 있다면 구조상으로는 안정된 부위이기는 합니다.

○○○ 이 작가가 보니까, 40페이지 보니까 시공 방법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제출한 것 같아서 다른 뭐,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 작품의 최고 높이가 4m거든요. 4m면은 혹시 그래픽 상으로 4m가 느껴지시는지.

○○○ 그 아마 재질감에서 그 알루미늄인데 폴리싱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 그렇죠, 또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또

○○○ 예, 반짝거리는 거울, 미러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좀 고려를 좀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게 디자인, 디자인 능력입니다.

○○○ 근데 앞에 작품도 그렇고 이 작품도 저도 이걸 계속 유심히 봤는데 사람하고, 이 작품하고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높이는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엄청 지금 작은 거거든요. 근데 엄청 크게 지금 보여져요.

○○○ 그래픽이 항상 이렇게 과장되게 합니다, 이렇게.

○○○ 그래서 이제 또 설치 시에는 또 이게 너무 작아서 웅색해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 그래픽보다는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아마 실제는. 공간 자체도 크니까, 주변 공간이 크니까 사실 실내에 들어가면 4m는 작지 않은데 야외에

나올 때는 그렇게 큰 작품은 아닙니다.

○○○ 제가 볼 때는 위치가요, 배치도상 위치가 두 개로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좀 뒤쪽에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자전거 거치는 일도 뭐 하고, 도로 상에. 부대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 설치 위치가 48페이지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뭐 깔끔할 텐데 실제 설계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예, 조금

○○○ 조금 위치를 좀 감지할 수 있는 그래픽이 있나요?

○○○ 예, 있어요. 그 앞에 4차선 도... 아니, 그 몇 차선이죠?

○○○ 이걸 가요? 이거?

○○○ 왕복 4차선인 것 같은데

○○○ 도로 위계를 보면 20m

○○○ 예.

○○○ 그 도면 쪽에서

○○○ 그러니까 지금 녹지 규모에 비해서 작품도 크지 않은데 위치가 좀 어정쩡하게 있게 되면 더욱더 이 작품이 이제 왜소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도면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평면도 위에 조경도 자체가. 아까 작품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코멘트를 달긴 했지만 경사면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전부 평면에 설치돼 있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위치도 도로 쪽이면 도로 쪽 아니면 보행자 쪽이 보행자 쪽 그게 좀 명확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세하게 나왔으면 그 위치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작품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 설치 장소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은데 계획도만 가지고는 사실 작품의 질, 퀄리티만큼 설치 위치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냥 여기 설치하는구나.’ 하고 대충 알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잘 보시는 분이라면 조금 더 잘 보겠지만.

○○○ 근데 이 <행복한 여행길>이라는 작품이 그 주출입구, 보행자 주출입구 옆에 있어서 피노키오보다 좀 더 시각적 사람들이 다가가는 데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 좀 더 공개돼 있는 장소라 이거죠?

○○○ 예, 예.

○○○ 그럼 작품 13하고, 14하고 바뀌어야 되나요?

○○○ 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부정정성은 말할 수 있지만, 뭐 바꾸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설계도면만 봐가지고는 아직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럼 작품 위치에 대한 어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또 요청해야 될까요? 그래픽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 작품에 큰 무리가 없다면 조건부 조건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출입구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표현해서 작성 좀 보이는 위치에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럼 두 작품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되겠죠? 이들도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를 또 다시 제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조건부를 제시를 하죠. 그 다음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15번...

서 기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할 때 위치가 2m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아, 아,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그래픽만 보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47페이지.

○○○ 아, 47... 아니, 40 몇 이지... 여기 어쨌든 도면에 보면 옆에 엘리베이터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는 지역이고 아마 자동차의 형상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앞에 도로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위치를 그렇게 틀어서 이분이 이렇게 도면을 한 것 같아요.

○○○ 그랬을 수도 있죠.

○○○ 아마 작품이 돋보이려면 작가가 더 위치를 좋은 데 선정하고 싶어 할 것 같고.

○○○ 네, 네.

○○○ 그 내부에 있는 것보다, 바꾸는 것보다는 도로 쪽에 있는 게 이 작품이 저는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네, 네, 네.

○○○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 이 도면, 지금 심의도서에 여기 이미지가 앞에 있는 이미지와 다르거든요. 그 토끼가 지금 키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메인 이미지를 놔뒀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심의도서를 잘못 제출하신 것 같거든요.

○○○ 토끼 영상이 다르다는 건가요? 그래픽별로?

○○○ 예, 이 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하고, 이거 떨어져 있고. 두 페이지만 지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래요.

○○○ 뭐 작가가 뭐 붙어있건, 떨어져있건 별로 그렇게...

○○○ 그게 높이가 4m라서 그 2m 잡고서 위에서 봐도 어차피 토끼, 그 운전

자랑 옆에 동승한 저

○○○ 이게 방향이 문제인가요

○○○ 파트는 뒤통수만 보지 않을까.

○○○ 예, 위에 그거는 못 볼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 진짜 어떤 걸 보면 토끼 두 마리가 키스를 하고 있네요.

○○○ 46페이지는 키스 하고 있고, 44페이지는 떨어져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 크게 지장은 없는 문제라

○○○ 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라는 거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죠. 통일된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료에서.

사회자 근데 설치했을 때, 검수할 때는 저희가 지금 심의도서를 참고해서 하는데

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사회자 앞과 뒤가 틀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일단 그 심의 끝나고 통일성을 좀 기해야 나중에 검수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네. 그거는 권고라기보다는 조건부네요.

사회자 예, 설계가 이제 도서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네, 검수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자 통일 돼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5번 넘어갈까요?

(채점 중)

5. 미추홀구 송의동 165-1번지 외

15)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

위원장 네, 15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5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15번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작품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그 작품 위치가 지금 도면에 있는, 도면에 있는 내용하고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작품 위치가 표현돼 있는 부분은 누구보다도 좀 전면에 나와 있고요. 주변에 또 자전거 보관소 인근에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림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돼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래서 좀 앞뒤 그림이 좀 안 맞는 그런 상황.

○○○ 전에 비슷한 작품을 심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결이 연못 같은 게 있고 거기 위에 설치해서 참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림도 작품도 살고 좋았는데, 지금 그래픽 상에서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위치 선정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네, 두 분 모두 위치에 대해서 한 분은 부정확하다 한 분은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 지붕이 있는, 지붕이 있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 예.

○○○ 작품 설치할 위치가 없었나 본데요.

○○○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 이 작품이 비를 맞으면 안 되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안으로 이렇게 그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그 공공작품 이제 많은 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어디 있는 장소가 있거든

요. 이렇게 비싼 작품이고, 훌륭한 작품인데 억지로 막 쥘겨넣는 듯한. 근데 작품도 아주 달빛 물결이라 굉장히 그런 파동이 아주 멋진데 안에 들어가서 ‘어, 이 작품 비 맞으면 안 되나?’ 일반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유리판에 반사 되게끔 해가지고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 예, 예.

○○○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효과가 반감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 장소에서 어떤 효과를 맞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웅색한 것 같습니다.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 이런 게 똑같은 게 산곡동에 현대 아이파크에도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 1층에 이렇게 좀 비 안 맞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에 조형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원래 작가 콘셉트가 그러면 좀 약간 실내형인가 이게 약간

○○○ 아니, 이게...

○○○ 폴리싱이면 기본적으로 밖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안쪽에 있어도, 있으면 뭐 저기 먼지를 덜 타니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트는 좀 사족인 것 같고요. 그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위치가 이 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안 나와서 지금 이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차라리 아예 안쪽으로 더 밀어 넣어서 벽에서 한 50cm나 1m 정도만 좀 띄워놓고 설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조처럼 또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환조처럼도 보이고 해서 낯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하고 다 가려놓은 것 같아서 좀...

- 답답하죠, 공간이.
- 답답하거든요, 건물 자체라서.
- 사실 그래픽 봐도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시각적 효과는 그렇게 뭐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효과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상 자체도 약간 뿔과리 같이 한쪽은 움푹 파이고, 한쪽은 튀어나오고 완전 구가 아니고 약간 납작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뭐 이렇게 공간 안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동선을 잘 방해한다든가 넓지 않은 공간에 거주장스러운 형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벽 쪽으로 붙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치가, 위치가 어쨌든 문제가 있네요. 작품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위치가 없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되는. 조형 작품이, 건축물 조형 작품이 받는 비판 중에 아주 전형적인 게 문패 조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패 조각. 어쩔 수 없이 하나 그냥 붙여놓는, 어쩔 수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놓는. 그 공간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갖다가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문패 조각이라는 말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공간이 제자리에 찾아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만약에 벽 속으로 뒤쪽으로 한참 민다라면 뒤에 있는 벽 하고 세부 계획서를 조건으로 근데 통과시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 근데 적절한 벽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우려스럽죠, 예.
- 그 계획을 조금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사실 여기 약간 필로티 같은 공간인데 이게, 이게 확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픽 상으로 보면. 그 공간을 더 확 멋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 작품 도면 7번 한번 보시면 한쪽만 쓰게 되게 하신 것 같은데요, 7번. 아니, 하나 더 밑에. 예, 아니요. 우측면도요. 예.
- 네, 벽 쪽으로 밀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 아, 저렇게 얇, 얇... 옆에서 보면 얇은데 저게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나요, 저게? 둥근 건데? 밑바닥에 닿는 면적이 어느 정도 밑으로 좀 박혀 들어가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저것도, 너무 얇아가지고. 가격 대비 너무 좀 작은가요, 작품이? 가격이 2억 1,000 뭐 작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공간을 좀 예술적 공간으로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공간을 좀 방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감출 수가 없네요. 작품 자체의 창의성이나 뭐 이런 완결도 이런 거 참 좋은데 그래픽만 같이 보는 데도 실제 작품 들어갔을 경우 까지 상상해 보면 그 답답함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채점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 위원장 그 집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은 잠시 휴식해도 괜찮을까요? 잠깐 나갔다 오실 분들은 나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심의했던 심의 자료들은 외부에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끝나시면 바로 자리에 놔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 위원장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내용 중예요, 통과된 것들 중에서 네 작품은 우리가 조건부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표 이후에 통과된 작품을 하나하나 조건부로 달 내용들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계 결과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대로 가결된 게 저렇게 되고요. 부결된 게 이제 6, 7, 8, 9, 11, 12. 저 중에 이제 가결된 것 중에 그 2번, 2번 <생각하는 나무> 가결된 작품 중에서 2번 한번 띄워주시죠. 예, 2번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좌대의 재료가 통석인지, 판석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둘 중에 어떤 걸로 하라고 좀 제안해 주실 수는 있나요? 어떤 게 더 나을까라는.

○○○ 통석이 맞기는 한데요.

○○○ 음, 네, 네. 그리고 기초 도면의 규격을 좀 명확하게 표시해서...

○○○ 저거 통석으로 하면요.

○○○ 돈 많이 써야지.

○○○ 작품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래서

○○○ 아, 시멘트로?

○○○ 저 길이도 없어요. 응, 총 길이가 없어.

○○○ 그래서 통석을 크기로 해야 되고요. 그냥 판석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
으로 그래가지고.

○○○ 예, 재료비 문제가 있군요.

○○○ 예, 재료비 문제가. 작가도 감당 못 할 거예요.

○○○ 네.

○○○ 작가가 안 할 수도 있어요.

○○○ 저런 걸 표현해줘야 다음부터 심의서류를 좀 잘

○○○ 아니, 통석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통석은 그 저기 나중에 충격이 가면
전체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판석이 보수 유지 측면에서 훨씬
좋은 거거든요.

○○○ 그 판석으로 표시를 했나요, 저분이?

○○○ 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잘 모르겠어요.

○○○ 네, 그러면 저 작품이 가결됐는데 어떤 조건부로 달 내용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 저 벤치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 의자 빼야 되지 않나

○○○ 그거는 뭐 좋아할 것 같은데요?

○○○ 아니, 뭐… 예.

○○○ 굳이 있어도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 그래도 좀 약간 좀 저 의자 때문에 작품이 좀 더 가벼워지는 요소가 있고 조금 줄렬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벤치는 좀 제거하는 거를 이거는 권고해야 되나요? 조건부로 해야 되나요?

○○○ 권고로 하죠, 권고로.

○○○ 권고, 권고가

○○○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면 해야죠.

사회자 작가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고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건을 달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 네, 네, 권고로 해도 그분이 이제 설치 안 하는 건 안 할 수 있고

사회자 그렇죠.

○○○ 안 하면 좋은…

○○○ 그렇지.

○○○ 네, 권고사항. 권고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기 도면의 어느 부분을 표시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 그렇죠, 기초에 뭐 가로, 세로 규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번 에 제출한 모든 작품이 다 기초도면에 대한 규격이 하나도 없으니까.

서 기 기초라는 게 베이스 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플레이트 판.
 ○○○ 플레이트 판 밑에 콘크리트 기초. 플레이트 판도 마찬가지로.
 서 기 네, 기초 부분이라고 할까요?
 ○○○ 네.
 서 기 세부, 이렇게 할까요?
 ○○○ 세부 도면, 그게 좀 더...
 서 기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작성 완료했습니까?
 서 기 네.
 위원장 4번 작품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서 기 4번이요? 네.
 위원장 <Feel My Heart with Love(사랑으로 벅차오르는 마음)>. 네. 이 작품도
 아까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나요? 밑에 기초 문제.
 ○○○ 기초 문제.
 ○○○ 네, 기초 콘크리트 보강 문제.
 서 기 이것도 그럼 같은 내용으로 기초 부분 세부 도면 규격 표시 이렇게 하
 면 됩니까?
 ○○○ 네, 기초 콘크리트 보강. 현재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보강이 돼야 된
 다. 기초 콘크리트 보강.
 서 기 규격은 지울까요?
 ○○○ 예.
 ○○○ 아, 그것도 규격이

○○○ 그러면 빗물 배수 문제를 이제

○○○ 네, 지중 또는, 또는 이에요? 또는 플랜터 기초와 일체형.

서 기 일체형.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일체형으로

○○○ 설치.

서 기 빗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회의 중에 여기 물 고인다고

○○○ 예.

○○○ 네, 배수 문제.

○○○ 하단부...

○○○ 배수 관련 문제 해결.

서 기 관련 문제 해결?

○○○ 배수라고 하니까 고인물 배수죠, 고인물. 하단부 고인물 배수 관련 문제 해결.

서 기 고인물...

위원장 그리고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지대의 확보 높이에 비례하는 넓이 그거는 정확히 뭐죠? ○○○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지대를 좀 더 넓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네.

○○○ 좀 좁아 보이니까. 지지대의 확보, 높이에 비례하는 넓이.

○○○ 네.

서 기 혹시 이거 문장 한 번만 더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표현이 맞는지? 기초 콘크리트 보강. 세부 도면 규격 표기. 지중 또는 플랜터 기초와 일체형으로 설치.

○○○ 또는... 플랜터... 기초와... 일체형으로 설치.

서 기 하단부 고인물 배수 관련 문제 해결. 지지대를 높이에 비례하는 넓이

로 확보.

위원장 하단부… 고인물 부세 관련 문제 해결, 네. 높이에 비례하는 넓이로 확보, 맞습니다.

서 기 괜찮아요?

위원장 네, 네.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자, 통과한 작품 중에 13번, <Montage - 피노키오>.

서 기 13번, 네.

위원장 <Montage - 피노키오>에서의… 이거 조건부 인가요? 오른손의 위치를 어린 아이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이거 형태를 바꾸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 무릎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 높이 조절? 위치 조절?

○○○ 오른손의 위치를 아이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형상 보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음, 네.

○○○ 네. ‘뒤로 보내라, 앞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서 기 이렇게 넣을까요?

○○○ 그럴 위험을 없애라, 그런 거니까.

서 기 오른손의 위치를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형상 보완.

○○○ 보완.

서 기 보완.

○○○ 네.

서 기 위치를 보완, 이렇게 할까요?

○○○ 확보를 위해

○○○ 위치 보완.

서 기 오른손의 위치를 어린이들의

○○○ 위치 보완이나 뭐 형상 보완이나 뭐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서 기 아니요. 위치와 형상으로 하나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서

○○○ 오른손 위치를 어린이들이 안전을 위해...

○○○ 위치를 바꾸라는 거는, 작품을 형상을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
고요.

서 기 이 표현 괜찮으실까요?

○○○ 예, 보완만 있으면.

○○○ 보완, 보완.

서 기 괜찮을까요? 네.

○○○ 보완이라고 던져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겠죠. 그리고 설치
위치는 경사면에 조성됨으로써 작품 설치 시 유의라고 해야 되는지
뭐.

서 기 그러면은 권고인가요, 그러면? 여기는? 설치 위치?

○○○ 경사면에 설치된 게 확실하다면 그것을 뭐 권고 정도로 안 될 것 같은
데요. 설치 위치는 경사면에 조성됨으로써 작품 설치 시 고려 요망. 경
사면 설치 시

○○○ 조건부 보완이면 그래픽을 현재 있는 그 레벨에 맞게끔 해서 그것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 그래픽만을 다시 그리라고요?

○○○ 네, 네. 지금은 작품 그걸 위해서 지금 평으로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줬
는데 근데 실제 레벨로 했을 때 경사가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더라
면 그냥 그림으로만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그래도 되고요. 그 경사면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경사면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경사면이 어떤지 우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 기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설치 위치가 경사면이므로 설치 시 경사면 고려.

○○○ 네.

○○○ 기울기 반드시 고려. 그래야 좀 더 강조가 되죠.

서 기 기울기 고려한 도면 제출, 이렇게 할까요?

사회자 도서라든가, 설계도서든, 심의도서를 뭐 저기 다시 제출하면 그때 저희가 한번 바뀐 거를 조건부 심의 때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위원장 네.

사회자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설계 도면을 좀 다시 제출해가지고 수정해서.

위원장 네.

서 기 설치 위치가 경사면이므로 설치 시 경사면 기울기 반드시 고려한 도서 제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위원장 다 작성하셨어요? 13번? 14번?

서 기 예.

위원장 그럼 15번. <물결치는 달빛(The Waving Moonlight)>에서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품 위치 조정에 대해서 이것도 그래픽으로 다시 받아봐야 될까요? 아니면 먼저 13번처럼 조정된 위치에 해당하는 그래픽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걸 그냥 권고로만 마칠지.

○○○ 15번은 확실히 도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위치를 제가 보니까 작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위원장 네.

○○○ 그래서 그걸 좀 건설 그 시행사나, 시공사나 한번 도면 받아서 정확하

게 이 위치에다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음, 어쨌든 현재의 위치는 변경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죠?

○○○ 15번 같은 경우에.

○○○ 예, 15번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런 걸로도 안 되고요. 위치 변경을 좀 조건부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기 위치 변경으로 해야 되나요?

○○○ 위치 변경을 조건부로.

서 기 위치 변경 조건부

○○○ 예를 들면 뭐 벽 쪽으로 좀 민다든가. 형상 자체가 납작한 거기 때문에.

서 기 그거를 또 표현을 해도 될까요? 벽에 붙여라라는

○○○ 근데 그건 정확하게 도면 위치, 도면 크기나 위치를 봐야지, 저게 쉽지 않아요?

○○○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말을 못 하니까

○○○ 근데 무조건 벽에 붙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 예,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면이 막...

정확한 도면... 도면과 위치를 설정을 해서 넘겨 달라, 이렇게.

○○○ 예, 그러니까 위치 변경 그 안을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해서 한번 보내줘 봐라, 이런 거죠.

서 기 변경안 제출, 이렇게 할까요?

○○○ 네, 네.

서 기 정확한 위치 표기, 이렇게 할까요?

○○○ 설치 위치 변경안 제출, 정확한 위치 표현. 예, 됐습니다. 예.

○○○ 설치 위치 변경안이라 그러면 변경하라는 얘기잖아요.

○○○ 네, 네. 변경해달라는 거죠.

서 기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까요?

○○○ 예, 예, 지금 위치에서 좀 변경했으면 하는 거죠.

○○○ 그리고 10번 그림도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그림이

○○○ 네, 똑같은 거 두 개?

○○○ 10번, 11번이 충돌을 하니까 그걸 띄워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 기 근데 11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 지금 10번이 가결이고, 11번이 부결이에요.

서 기 예, 그렇습니다. 10번만 가결이고, 11번은 부결이 되었어요.

○○○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 근데 다음에 이거 또 같은 내용으로 또 재심의를 들어오면 또 난감한 거죠.

○○○ 아, 그럼 부결된 이유를 얘기하면 될까요?

서 기 부결의 사유는 아까 그 채점표에 적어주시잖아요.

○○○ 네, 네, 네.

서 기 제가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다 전달을 하거든요.

○○○ 그게 충돌돼가지고, 예.

서 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결 사유로 적어주신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 음, 부결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 사유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아

서 기 11번.

○○○ 예, 뭐 동양의 정서와 목판의 기법을 가미한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혀 그림하고 매치가 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분을 보니까 많이 그림을 하셨네요. 작년, 제작년 많이 했는데 그 작품성이 공공미술에 너무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예술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

립니다.

○○○ 제가… 예를 들어서 단일 공간에, 단일 공간에 한 작품만 설치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 기 네

사회자 아, 그러면 10번 작품에다가 조건을 걸어서,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면 그거하고 이렇게 또 별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여튼 10번 하고, 11번 하고 찢어지게 됐죠.

○○○ 근데 저렇게 되면 이제 작가가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작품은 이게 예술성 없으면 내지는 뭐 없으면, 이렇게 하고 떨어지고 하나는 붙고 그러면

○○○ 갑자기 이의 제기를 ‘이건 되고, 왜 이건 안 돼요?’ 이럴 것 같은, 할 수도 있어서

○○○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 스타일의 작품인데 그렇게 되면 좀

○○○ 사실 작품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위치.

○○○ 위치 때문에.

○○○ 뭐 그것도 뭐, 위치도 뭐 탈락의 이유가 충분히 되죠.

서 기 아까 그리고 ○○○ 위원님이 부결사유에다가 한 점만 위치하라고 적어놓으셨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 부결사유로 전달을 할 테니까

○○○ 만약에 10번, 11번이 다 가결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건부로 하면 딱 좋은데 지금 하나가 찢어진 상태라서.

○○○ 그리고 그 한 작품에 대한 가격이 있잖아요.

○○○ 네.

○○○ 그거를 또 다시 다른 작품으로 낼 테니까 저희가 그 층에 하나만 달라, 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떨어지면 ‘왜 이건 되고, 이거는

떨어졌냐?’ 이렇게 제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번에 다른 작품, 자신의 다른 작품을 제출할 거예요.

○○○ 예. 지금 권고안 조건부 다 작성된 거죠?

서 기 네, 작성 다 했습니다

사회자 아, 14번이 아까 심의 당시에 그 이 작품… 아니, 그러니까 토끼 형태에 대한 부분을 앞쪽에 하고, 뒤쪽에 도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통일시킨 도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 예, 예, 그거 필요합니다.

사회자 예, 예.

○○○ 14번도 가결됐으니까.

서 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심의도서 상 작품 이미지 통일

○○○ 다 작성된 겁니까? 아까 14번 자동차 내용, 그렇게 기재한 거죠?

서 기 표기, 이미지요.

○○○ 그래픽 이미지를 통일해라.

서 기 도서 상 작품 이미지 괄호 열고 토끼 형태 통일.

○○○ 네, 네, 검수할 때 문제가 되니까.

위원장 자, 심의결과 최종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5건의 심의 안건 중에 원안 가결된 것은 1번, 3번, 5번, 10번 그리고 조건부 가결된 것은 2번, 4번, 13번, 14번, 15번 그리고 이 중에 권고로 가결된 게 조건부 가결하고 같은 2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 7번, 8번, 9번 11번, 12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의 사 봉 3 타)

위원장 자, 이것으로써 2023년 제7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 동 박 수)

- 녹 취 끝 -